

#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 10만명 이하로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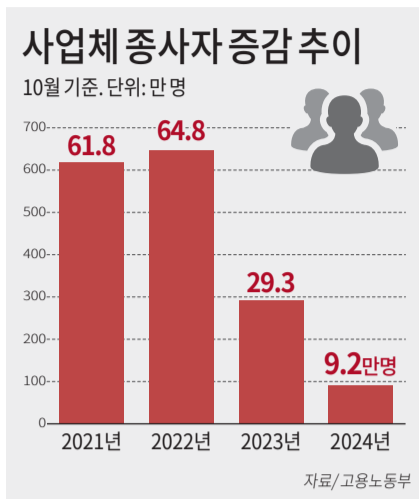
고용부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 상용근로자, 전년보다 0.2% 늘어 3분기 명목·실질임금 3.4%·1.3% ↑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수가 3년 7개월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2000명(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다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



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 도매 및 소매업(-0.9%)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량 증가에 그쳤다.

10월 중 입직자는 8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2.4%), 이직자는 85만6000명으로 9000명(-1.1%)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 고용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밀키트 비율이 늘다 보니 근로자가 줄었다"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 수가 준 것 또한 전체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9월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시간(-5.7%) 감소했는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줄었기 때문이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평균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다. 다만, 3분기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입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가 변경돼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산업부 방글라데시와 EPA 협상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이 개시돼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에서 체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과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며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대 방글라데시 수출은 16억2600만달러, 수입은 6억4900만달러로 약 23억달러다. 2026년 UN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에 대비, 일본·중국·인도·태국 등 주요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날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재한(왼쪽에서 세 번째) 농촌진흥청장이 28일 충북 진천의 한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해 고추 수경재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

## 농진청, 고추 재배기술 개발에 팔 건어

고령화·노동력 부족에 수확량 ↓ 스마트팜 수경재배 현황 점검

농촌진흥청이 고추 생산량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고추 농가는 고령화 여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까지 겹쳐 수확량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생산 면적이 40% 감소하고 농가당 재배 면적 또한 소규모화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계화 도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소, 비가림시설 등 시설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특히, 생산

량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재한 농진청장은 28일 충북 진천의 한 스마트팜 시설을 찾아 고추 수경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조절기술을 활용한 노동강도 완화, 병충해 극복,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점검했다.

진천 농가에서는 최근 2년간 고추 수직 수경재배 시험을 진행했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본격적인 수경재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고추 스마트팜 재배 시험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I 활용 농업생산기발시설 안전진단 논의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전북 부안에서 '2024년 농업생산기발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안전진단 관리체계 방안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첨단 홍수에·경보시스템 구축 ▲댐·저수지의 첨단 안전장비 및 현장 조사 기법 등 최신 기술과 연구성과를 담은 주제발표 등이 소개됐다. 또 ▲노후 중·소규모 농업용 댐 긴급 홍수대응기술 ▲비상대처수립 절차 및 강화방안 ▲재난 상황별 대처방안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발 관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 정비 등을 통한 사전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韓-日 기업인들 한자리에 스타트업·AI 협력 등 논의

무협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양국 간 규제 검토·협력 강화 필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 제시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AI(인공지능) 분야 협력과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2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2월 무협이 출범한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이다. 지난 5월 도쿄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를 비롯한 한국 측 위원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포함한 소속 위원 14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해소돼 양국 관계는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스타트업,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그린에너지 전환, AI 포함 첨단기술 등 4대 한일 협력분야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긴밀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는 양국 기업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진 왼쪽)과 조현준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2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앞서 한담을 나누고 있다. /무협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이후 양국 경제단체 공동 제안(Joint Statement)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타트업 및 AI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 정부 규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양국 간 규제 검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와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문제에 공감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헬스케어 분야 협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무협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 도쿄에서 '제3차 한일 경제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3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성공사례를 발굴해 양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aT 공공구매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서울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2024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분야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공공구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제도혁신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수여한다. aT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계약상대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aT는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을 위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2년 연속 초과 달성했고, 작년 6월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선제 도입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대비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감질 예방을 위한 내부 제도 정비 ▲고유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분야에서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에 이어, 한 달 만에 공공구매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세종=김연세 기자